

No.18

Japan Weekly Digest

2010. 1. 18 ~ 1. 24

□ 금주의 이슈

- 일본인 起業家정신 감소 추세, 노무라연구소
- 하토야마정권 지지율 급락, 共同통신
- JAL 부채총액 2조엔 과거 최대

□ 일본 정재계 소식

- 도요타와 일본정부, 리튬 광산 개발 착수
- 간 재무상, 재무성 개혁 착수 발표
- 정부, 경기판단 보류 1월 월례경제보고
- 일본은행, 완화적 금융환경 유지 발표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경산성, 환경산업에 저리 융자제도 도입
- 정부, 주택 에코 포인트 정책 발표
- 미쓰비시, 전기자동차 충전소1000개설치 발표
- 도요타, 하이브리드카 100만대 생산계획 발표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 아시아 중심으로 신흥시장의 성장 활력을 이용하는
일본기업, LG경제연구원

□ 경단련 회장에 요네쿠라 스미토모화학 회장 내정 관련기사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3-9888)

□ 금주의 이슈

○ 일본인의 起業家정신 감소 추세, 노무라종합연구소

-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창업을 통해 경영자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일본 사람들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
- 기업가정신이 낮은 세대는 10대(31.8%)로 나타났고, 일하고 있는 사람의 약 60%가 '직장을 옮길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경기 침체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은 97년 49%에서 09년 35%로 감소

〈일본인 기업가정신 추이〉

(단위:%)

○ 하토야마정권 지지율 급락, 共同통신

- 共同통신이 1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자와 간사장의 자금 관리 단체인 「리쿠잔카이」의 토지구입을 둘러싸고 前비서 이시카와 중의원이 체포된 것에 영향을 받아 하토야마정권의 지지율이 41.5%로 급락
- 오자와 간사장의 사임여부에 대해서는 **사임해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73%**로 하토야마총리의 오자와 지지 발언에 대해 과반수가 반대

○ JAL, 부채총액 2조 엔으로 과거 최대

- JAL은 19일,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 그룹 3사의 총부채는 2조 3,221억 엔으로 집계되어 과거 최대 규모
- 법정관리 신청계획에 따르면 JAL은 정부로부터 6,000억 엔의 지원을 받고 8,000억 정도의 부채도 정부가 변제
- JAL은 30% 규모인 1만5,660명 감원, 31개 노선 폐지, 계열사 53개 폐지 예정

□ 일본 정재계 소식

○ 도요타자동차, 정부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광산’개발 착수

- 도요타그룹은 하이브리드카에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주원료인 리튬을 채굴하는 권리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아르헨티나에 진출
- 도요타그룹 계열회사인 도요타통상을 통해 호주 광물탐사업체인 오로코브레와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광산을 개발할 예정
- **일본정부도 출자할 예정**이며 경산성에 의하면 일본자본이 외국에서 리튬권리를 획득한 것은 처음이라고 발표

○ 간 재무상, 재무성 개혁 착수 발표

- 간 나오토 부총리 겸 재무상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재무성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간 재무상은 행정부의 상징으로 불리는 재무성 개혁을 돌파구로 삼아 관료 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할 계획
- 재무성 개혁팀을 구성하여 인사이동이나 초과근무 억제방법 등을 연구할 방침

○ 정부, 경기판단 보류 1월 월례경제보고

- 정부는 20일 발표한 「1월 월례경제보고」를 통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하는 경향에 있지만 자율성이 부족하고 실업률도 높은 수준에 있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
- 생산 활동이나 개인소비는 회복 추세에 있지만 수출이나 정부 경기 대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고용정세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발표

○ 일본은행, 완화적 금융환경 유지 발표

- 일본은행 시라카와 총재는 18일, 지점장회의에서 “물가 선행에 관해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극히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해 갈 것이다”고 언급했으나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경산성, 환경산업에 저리 융자 제도 도입

- 경산성은 태양광패널이나 전기자동차 등 환경관련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18일, 국회에 「저탄소 투자촉진법안」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음
 -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전략에 따라 투자규모가 크고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 정부, 주택 에코 포인트 정책 발표

- 정부는 환경주택의 구입이나 개보수에 포인트를 주는 「주택판」 에코 포인트 제도를 발표
 - 신축할 경우, 가구당 30만 포인트 적립. 개보수나 대형 설비, 창문 교환의 경우, 개당 1만 8,000포인트 적립 (1포인트=1엔)
 - 에코 포인트는 가전 에코 포인트와 동일하게 상품권이나 지역특산물과 교환 가능

○ 미쓰비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1000개 설치 계획 발표

- 미쓰비시상사와 미쓰비시지소는 고속도로회사나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전기자동차(EV)용 충전인프라를 전국에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
 - 주요 도시나 간선도로 중심으로 2012년까지 최대 10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하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료로 제공할 예정
 -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재 약 100군데 정도인 급속충전기를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정비

○ 도요타, 하이브리드카 100만대 생산계획 발표

- 도요타자동차는 내년 하이브리드카의 생산계획을 작년보다 2배 늘어난 10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
 - 부품 협력업체들에게 올해 일본에서 80만대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할 것이라고 전달(11년, 12년 각각 90만대 생산계획)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2010.1월)

‘아시아 중심으로 신흥시장의 성장 활력을 이용하는 일본기업’ LG경제연구원

○ 일본기업의 아시아 수익비중 확대

- 일본 내수시장 침체, 구미 선진국의 고급 소비 시장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일본기업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을 기반으로 수익을 회복하고 있으며, 2010년도 신흥시장 공략에 주력
 - * 아시아 지역의 이익 비중은 2009(4월~9월)기준으로 46%에 달해, 일본 국내의 29%를 상회
- 일본기업은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코스트를 낮춘 신흥국용 제품 모델의 개발에 주력
 - * 도요타 : 다이하츠와 100만 엔을 밑도는 소형차 공동개발

○ 아시아의 중간소득층 시장에서 저팬 브랜드를 다시 강화

- 일본기업들이 제품 기능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면서 신흥국 중간소득 시장을 공략하는 소위 다운 그레이드(Down Grade)형 전략에는 위험성이 있음
- 일본기업의 제품개발 기능은 일본 국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은 개발인력의 코스트를 고려하면 일본기업이 신흥시장에서 한국, 대만 기업이나 현지기업과 같은 전략으로 승부하는 데에는 한계
- 물론 일본기업도 신흥시장 공략에 있어서 이러한 다운 그레이드(Down Grade)형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님
 - 생활화학 기업인 유니참은 아시아 현지 시장에서 제품 품질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현지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최소화

○ 신흥국 인프라 시장 개척에 박차

- 일본기업은 인프라 비즈니스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활용하는 한편, 일본기업연합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서 신흥시장을 포함한 막대한 세계 인프라 시장의 개척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 일본이 현재 추진 중인 세계 인프라 투자는 약 430조엔 수준임

□ 경단련 회장에 요네쿠라 스미토모화학 회장 내정 관련기사

경단련 회장 인사, 도시바 독점에 재계 난색

1월 24일 7시 26분 배신 요미우리 신문

일본 경단련의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 富士夫) 회장(74)(캐논 회장)의 후임 인사는 23일, 우여곡절 끝에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 弘昌)·평의원회 의장(72)(스미토모화학 회장)가 취임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번 경단련 회장 인사는, 미타라이 회장이 일찍부터 「현역의 부회장으로부터 선택한다」라는 당초 방침으로 도시바의 니시다 아쓰토시(西田 厚聰) 회장이 최 유력 후보로서 조정이 진행되어왔었다.

그러나, 도시바의 오카무라 다다시(岡村 正) 상담역이 일본상공회의소 회장(會頭)을 맡고 있어, 경제 3단체의 톱 중 두개를 도시바가 독점하는 것에 대해 재계 유력기업의 일부에서 난색으로 인해 니시다 회장의 기용은 최종적으로 단념할 수 밖에 없었다.

평의원회 의장의 회장 취임은 꽤 이례적인 것으로 「요네쿠라씨의 기용은 변칙적이다」(재계수뇌)라는 견해도 많았다. 단지, 후보로서 부상한 기업의 대부분이 2010년 3월기 결산에서 최종 적자를 전망하고 있는데 대해 스미토모화학은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의원회 의장으로서 현역의 재계 멤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용하게 되었다.

[약력]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 弘昌)

1937년 3월 효고(兵庫)현 출신
1960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60년 스미토모화학공업(현 스미토모화학) 입사
1991년 이사
1995년 상무이사
1998년 전무이사
2000년 사장
2008년 5월 일본 경단련 평의원회 의장
2009년 4월 회장(현직)



경단련 차기회장에 요네쿠라 스미토모화학 회장 첫 재벌계 출신

1월 23일 22시 00분 배신 마이니치신문

5월에 임기 만료를 맞이하는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 富士夫)·일본 경단련 회장(74)의 후임에, 경단련의 평의원회 의장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 弘昌)·스미토모화학 회장(72)이 굳혀졌다. 근시일 내에 열리는 회장·부회장 회의에서 승낙한 후, 5월의 정기총회에서 정식 결정하여 취임한다. 임기는 1기 2년, 관례로 2기 4년을 맡는다. 스미토모화학 출신의 경단련 회장은 처음. 재벌계 기업 출신자의 취임도 처음.

요네쿠라씨는 2004년에 경단련 부회장에 취임, 2기 4년간 맡은 후, 2008년부터 회장의 자문기관인 평의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어, 실질적인 넘버 2인자다.

스미토모 화학에서는 2000년에 사장으로 취임.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의 감염을 예방하는 모기장 「오리세트 넷」을 개발, 현지 생산하는 등 사업과 원조의 양립을 실현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대급의 석유화학 콤비나트(combinat)를 건설하는 등 대형투자 등 적극적인 경영수완이 평가되고 있다. 사장 재임 중인 2004년 10월에 스미토모화학공업에서 스미토모화학으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재벌계 기업에서 첫 경단련 회장이 된다. 지금까지 비재벌계의 기업 출신자가 회장을 맡아 온 경단련의 불문율을 깨는 형태로의 선출이 되었다. 또, 화학업계 출신의 회장은 초대이 이시카와 이치로씨(石川 一郎, 1948~56년 재직) 이래.

경단련 회장은 자민당 시대, 「재계총리」로서 경제계의 견인역을 자부해 왔다. 그러나, 작년 8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한 정권교대 후는, 정권에의 발언력이 상대적으로 저하. 또,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재계활동 보다도 본업에 비중을 두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요네쿠라 차기회장은 난국의 가운데서 경단련을 인솔하게 된다. 【三澤耕平、後藤逸郎】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2010년 4월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300여명이 매년 4월 정례적으로 만나 양국 기업인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한일 간의 경제현안 사항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는 2010년 4월 14일(수)~17일(토)까지 일본 오카야마(岡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969년 이래 제4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2월 초에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일정 수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관심 있는 회원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회의개최(안)

- 개최기간 : 2010년 4월 14일(수) ~ 17일(토)
- 개최장소 : 일본 오카야마시(호텔 그란비아 오카야마)
- 규모 : 한일 양국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300여명

| 한국측 : 약 150여명 |

- 단장 :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 (효성·전경련 회장)
- 단원 : 경제5단체장 및 삼성, 현대 등 주요기업 대표, 관련단체 등

| 일본측 : 약 150여명 |

- 단장 : 일한경제협회 飯島英胤(IJIMA Hidetane) 회장 (도레이 특별고문)
- 단원 : 경단련 회장 등 주요경제단체장, 미츠비시, 도시바 등 주요기업 등

- 주최기관 : (사)한일경제협회, (사)일한경제협회

■ 기타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논의희망 테마 등이 있으시면 수시로 우리협회에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문은 2월 초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 조덕묘 부장 TEL : 3014-9855 / E-mail : chodm@kje.or.kr

